

● 5월 12일 나의 하루는...

자-112-3

아름다운 꽃들이 저버린날

어머니의

4월 16일 아직 못다 핀 수많은 꿈가진 민들레들이 날아갔다. 금양 선처럼 같은  
 꽃들이 꽃꽂히 버텨, 아내 훌쩍 자라 함께 여행을 떠났다. 자식을 여행보낸  
 마음 건강히 잘 돌아오라 많은 것 느끼 걱정하며 돌아오라 굳게 다짐하시던  
 보내셨던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것이다. <sup>그러나</sup> 그 깊은 포근한 길이 아니었다. 하늘은 비나  
 빨리 꽃들을 보습이 해줬고, 험난한 길을 주시며, 아사할 새도 없이 데리고  
 가셨다. 같은 배에 탄 꽃들은 갈무리인 약이 많이 든, 한없이 무너져 내렸다.  
 그 중 자신의 꽃을 남에게 기여한 꽃들이 있었다. 그 처지란 말속에, 금양이라도  
 이두유처럼 같은 마음으로 공명에 일어나 평안을까 소원을 들은 부모님들의 마음  
 얼마나 썩어닥이 다들, 발고 울었을까 그 많은 꽃들의 꿈과, 희망은 시간이 갈수록  
 희미해지고,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길어질수록 사랑들의 기도라, 희망은 점차  
 고독과, 원망과, 슬픔이 남아있었다. 두말 바뀐 잤었으며, 밥을 먹어도 먹은게  
 같지가 않은, 내 아들 딸 사랑한단 보, 이미 하늘로 간 꽃들이라도 보  
 싶었던 그 아라는 마음을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늘은 그 많은 꽃  
 들을 좀더 빨리 곁에 두셨으셨나보다. 아리 하늘에 원망을 해도 대신  
 돌아지 않는 그 꽃들을 걸을 수 없는 것은 알기에 원망과, 고독은 점점  
 무로움으로 바뀌어 갔다. 내 일이 아니지만 나 또한 너희 안락하셨고,  
 하늘이 꼭이라도, 전부의 꽃들이 돌아갈 바라지만 하늘은 그렇지 않  
 기 같았다. 다음 생에는 꼭 대신 그 가족들로 돌아갈 날다. 따뜻한  
 밤과 사랑과 애정을 대신 꼭 들이 돌아치를 지성으로 원한다.